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섬기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에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2월 2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 인류가 약속한 1년이라는 시간단위를 계기로 이맘때면 우리는 살아온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된다. 특히 불자들은 인과와 참회와 회향을 생각한다. 짧게는 법회를 마칠 때도 우리는 '회향'으로 끝낸다. 회향정신은 남이 잘못한 댓가는 내가 받겠으며 내가 잘한 댓가는 남에게 돌리겠다는 자비정신의 극치이다. 그래서 회향은 보살행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1년살이를 회향하면서 남에게 돌리는 공덕이 더 많은 사회이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지 주〉

회향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수순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돌려야 한다. 〈화엄경〉

모든 공덕 남김없이 회향

시시각각 움직여서 밤과 낮이 잠깐 사이에 흘러가고, 하루하루 흘러서 보름과 한달이 번개처럼 가버리며, 한달 한달 지나가서 홀연히 일년이 다가오고, 일년 일년 흘러서 잠깐 사이에 죽음이 찾아온다.

〈발심수행장〉

나쁜 버릇이 조금도 없고, 악(惡)의 뿌리를 뽑아 버린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이.〈숫타니파타〉

참으로 제행은 무상하여 생멸(生滅)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생한 것은 또한 멸하니 그것을 뛰어넘어 안락이구나. 〈대반열반경〉

삼매를 닦아 생각을 밝내라. 그러면 생각은 밝게 나타난다. 그러면 늙음과 죽음의 모습이 참되게 보이고 모든 법의 덧없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느니라. 〈잡아함경〉

설사 저 허공을 땅으로 만들고 땅을 허공으로 만들 수 있다해도 이미 뿌려놓은 인연의 씨앗은 싹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나니 인연이 무르익는 날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하리.〈증일아함경〉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번 지나가버린 것은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저러한 현재의 일을 이모저모로 자세히 살펴 흔들리거나 움직임 없이 그것을 잘 알고 익히라. 〈대가전연일아현자경〉

"하루 하루가 다 좋은 날이지요.(日日是好日)"

〈벽암록〉

제1회 불교문학상 당선작 발표 13면
도현이 가족 자비행 '세밀 훈훈' 15면
96년 불교계 기자방담 · 화보 6 · 7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조계종 97년 '전법의 해' 지정

출·재가 1만여 지도자 대회 등 행사 다채
지방순회 조직강화…도시마다 교양대 개설

조계종이 97년을 '전법의 해'로 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18일 전국교구본사주지 및 주요기관장 초청간담회에서 "내년 전법의 해를 맞아 출·재가를 망라한 불교지도자 1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전법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은 "지난 11월 조계사에서 개최한 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 본·말사주지 결의대회의 성과를 확산시키기위해 내년을 전법의 해로 정했다"며 "종단사상 처음으로 출·재가를 망라한 불교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국 불교지도자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내년 9월경 열리는 전법대회는 전국의 불교지도자들이 모여 전법의지를 다지고 불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일깨우는 자리가 될것이다"며 본사주지스님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총무원은 불교지도자 전법대회에 앞서 '전법의 해' 홍포를 위해 전국을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 전남북, 강원, 대전 충남북등 5개지역으로 나누어 지방순회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96년을 '불교 청소년의 해'로 정해 청소년포교 기틀을 세운 조계종은 내년 '전법의 해'로 정하고 5개년사업으로 △전국 도시마다 불교교양대학 개설 △불교회관건립 △전법대회 개최 △포교대상실시 △포교사 양성 △포교책자 발간 등 다채로운 행사계획에 들어갔다.

한편 조계종은 '97년 전법의 해' 선정에 따른 기획안을 종정스님에게 보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은 내년초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다.〈이준엽 기자〉

청주 BBS 지사장 박재선씨 임명

불교방송은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 불교방송 15층 회의실서 불교청주방송 지사장 임명식을 갖고 지사장에 박재선씨(진흥건설 사장)를 임명했다.

이날 지사장 임명식과 더불어 개국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불교청주방송은 지난 23일 오후3시 첫 시험방송 전파를 쏘아올렸다.

한민족공동체 성금모금 전개

조계종, 내년 5월까지…1월말 대대적 거리탁발

조계종이 남북한과 중국동포를 위한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6일 총무원청사에서 '요익중생의 보살행을 전개하자'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성금모금사업을 97년 5월3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남북한은 물론 중국등에 수백만명의 절대빈곤자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월주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기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매달음의 사회화운동 일환으로 펼쳐지는 이번 모금운동은 △96연탁연시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모금대법회 △오는 1월25일 '민족이 하나'임을 깨닫는 대대적인 동체대비 탁발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 등이 전개된다.

특히 이번에 모금된 성금가운데 50%를 귀순자·탈북자 등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용한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가동

문화재연구 · 사찰불사 심의…위원 19명 확정

성보문화재의 보존관리와 불교문화의 전통계승을 위한 전문기구 '성보보존위원회'가 태동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8일 이달안으로 성보보존위원회를 구성해 성보보존관리의 기본 추진방침을 정하기로 하고, 성보보존위원회 1차 회의 후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총무원은 이에 따라 모두 19명의 성보보존위원회 추천자 명단을 확정하고 오는 26일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효율적 성보관리 및 창조적 성보 조성 등을 취지로 하고 있는 성보보존위원회는 △성보조사 및 연구 △각 사찰 불사심의 승인 △성보 · 사적지의 조사발굴 및 복원 △성보 보호구역 지정 · 해제 △불교 유 · 무형 문화재 조사 및 발굴, 전승 등 성보보존관리 및 사찰불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특히 사찰 불사 심의 승인의 경우 △사찰 신 · 개축 등 불교건축 분야 △탱화 · 불상 · 단청 · 사물 등의 불교미술분야 △사찰 경내의 조경 등 환경분야까지 망라돼 있으며, 지정 · 비지정 문화재의 보수 심의 승인도 관장토록 하고 있다.

〈본지 83호 13면 · 88호 6면참조〉

고속철 경주노선 '화천리'로

건교부 사실상 결정…불교계 · 문화계 · 고고학회 등 '환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에 역사(驛舍)를 두는 화천리노선이 경부고속철도 새경주노선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건교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원장 양수길)은 지난 18일 경주시 육부촌 대회의장에서 3백50여명의 학계 문화계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 자료를 통해 화천리노선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수길원장은 "경합을 벌였던 기존의 세 노선들은 제각기 결점을 내포하고 있어 위원들간에 의견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며 "화천리노선 주변은 선도산과 벽도산이 남산을 가리고 있을 뿐만아니라 문화재 분포수도 10개소에 불과해 최적노선으로 추천됐다"고 밝혔다. 양원장은 또 "화천리노선은 총공사비가 2조8백47억원으로 기존의 3노선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주변교통망과의 연계성이 양호하고 기존철도의 이설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화천리노선이 다시 모색되기 시작한 것은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이 10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가 나온 뒤부터다.

그러나 새 대안 화천리노선은 건교부와 문체부 및 문화재전문위원들까지 동의하고 있어 별다른 변수가 돌출하지 않는한 최종노선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경주=이윤호 기자〉

제1회 불교문학상 시 당선작

부처꽃 필 무렵

서춘기

흰구름산이 파르는바다쪽으로 비끄러져 내리다가
턱, 가쁜 숨 멈추어 선 자리 엉 킬 때랑 위에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절집 하나 있었지
벳날도 아주 벳날이라 벳사람들은 밤마다
연등을 붉게 꽃 피우는 그 절을 등대삼아 벳길을 잡았다지
어느 해인가 부처꽃 필 무렵 모두들 먼바다로 고기잡이 떠났는데
난데없이 먹구름 덮다 싶더니 비바람 몰아치고
절집이 날뛰는 파도 파도들…
폭풍 치마폭 펼쳐말기며 일순간에 바다가 미쳐 버린 거야
아 등불이 보이질 않아 절집이 보이질 않아
사라져 버린 벳길 위에서 가슴가슴 자맥질하는
허지식들의 저 초롱한 눈망울 보이라

주렛소리에 놀라 스님께서 번쩍 눈 떴다지만 그게 아니야
가슴저릿한 노스님의 깊은 잠 깨운 것
늙으막에 찾아온 그놈의 아노증이었지
밭은 아랫도리를 대충 수습하고 나서 삼도리 타는데
간혹 문살을 할퀴는 번갯불에 바랑세상이 걱정이다 싶어
문밖으로 나섰더니 아뿔사 천지간이 온통 무명 세계라!
산도 바다도 이미 제 주심으 놓쳤으니
오욕의 살덩이들만 쥐리 없이 헤매는구나
노스님이 맨발로 달려 나가 놓다란 절집 마당에다
관솔을 쌓고 불을 지폈지만 거센 비바람이 가만 두지 않았지
불보시재를 토방으로 옮기고 다시 불을 붙였는데
들이치는 빗방울 때문에 그것도 허사였어
밤시 파르는바다쪽은 혼각을 다투고 있을 뿐데…
그 때 문득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떠올랐어
그래 바로 그거야 가는귀먹은 스님이 재시시 웃으며
관솔더미를 법당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어
지그시 심눈 뜨고 파르는바다쪽을 굽어보시는
부처님 제신 자리에 장작더미 높게 쌓아 올리고 불을 지피니
아아 화염에 휩싸이는 대웅보전…

그렇게 붉고 큰 부처꽃은 처음이었어 난생처음이었다니까
간신히 새벽녘에서야 얼에 아홉이 산록길으로 돌아와
흰구름산 아래 작은 포구에 닻을 내린 벳사람들이
부처꽃 필 때마다 두고 두고 말했다지

데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동참해주신 분

◇혜총스님

△혜총 부산 감로사주지: 부산동성 · 성전 · 전포초등학교(6구좌)

〈12월 18일 현재 총 565구좌 접수〉

감사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1년간 전국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보내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각계의 동참으로 총 573구좌가 접수됐으나 8구좌가 미입금돼 565구좌로 마감합니다. 그동안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기사 11면〉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출간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세상 모든 사람을
부처로 바라보게 하는 책!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슬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전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여시아문의 마음 읽어는 책들 / 여시아문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마음 담아는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석)된 33분 큰스님들의 법어집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삶과 수행의 등불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자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